

유명 방송 작가들 예향 광주 매력에 빠지다

광주시 작가 21명 대상 기획답사 양림동, 5·18민주묘지 등 둘러봐 "광주에 애정 생겨 관심 가질 것"

국내 유명 방송 작가들이 광주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뜻깊은 경험을 했다. 광주시는 4일부터 5일까지 방송을 통한 광주의 매력과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국내 방송작가 21명을 대상으로 광주 주요 명소를 둘러보는 기획답사를 했

다. 이번 기획답사에는 SBS 드라마 '닥터 이방인'의 박진우 작가, '스타킹'의 이주연 작가, KBS '도전! 골든벨'의 이정아 작가, 'KBS스페셜'의 정종숙 작가 등 드라마·다큐·오락 프로그램의 유명 작가들이 다수 참가했다. '이야기가 있는 광주'라는 주제로 진행된 답사에서 작가들은 첫날 광주시테 테마투어버스인 '백년이야기'를 타고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아시아문화전당, 옛 광주국군통합병원을 방문했다.

5일에는 국립 5·18민주묘지와 1913송정역시장을 둘러보며 의향·예향·미향의 매력을 가진 광주다움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이용섭 광주시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광주의 역사와 풍경, 문화, 음식 등에 대해 느낀 점을 가감 없이 이야기했다. 한 작가는 "7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광주를 자세히 알 기회가 되었다"며 "이번 답사로 애정을 가지게 된 광주를 앞으로도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작가 여러분들의 광주에 대한 감성과 느낌은 광주다움을 상품화·브랜드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한 달 뒤에 열리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4월 25~26일에도 한국독립PD협회 초청 기획답사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고, 앞으로도 기획답사를 통해 광주의 매력과 가치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공장 육성

광주혁신위, 시정혁신 권고문 노후산단 리뉴얼 재구조화

광주시장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주정민)는 5일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시정혁신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는 혁신추진위가 지난해 11월 27일 출범한 이후 공공기관혁신과 시립예술단 활성화 등에 이어 네 번째 시정혁신 권고문이다. 혁신추진위는 이날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시정혁신 권고문을 내었다. 구체적으로는 ▲전략산업 중심 기업·산업별 스마트공장 전략적 육성 ▲산업단지의 스마트 제조혁신 거점화 ▲기업의 현장수요에 대응하는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기본방향에 따라 13개 과제를 제시했다.

높아졌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또한 광주시 경제 발전을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노력, 지역기업의 생산효율성 제고 지원전략이 필요하다는 위기감도 반영됐다. 혁신추진위는 권고문에서 "스마트설비의 표준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표준화 선도도시'로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지역 내 유치 등에 노력하라"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공장 '공급-수요기업의 통합 지원체계'와 산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유인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민·관 제조혁신 거버넌스'를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스마트공장이란 설계·개발, 제조 및 유통·물류 등 생산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생산성과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공장을 가리킨다. 노후산단 리뉴얼 또는 신규산단 조성 시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거나 도입이 용이하도록 재구조화하도록 권고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 같은 권고문을 내놓은 배경에는 자동차·가전산업이 광주의 산업경제를 선도하였으나, 대기업 협력관계 의존도가

여수광양항 물동량 창출·여수산단 기업유치

여수광양항 활성화 간담회 정례회

전남도를 비롯한 지역 주요 기관들이 여수광양항의 신규 물동량 창출과 여수국가산업단지의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여수광양항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가 운봉대 전남도 정무부지사, 김진식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차민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수광양항의 발

전을 위한 물동량 창출 방안,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부족한 공급업체 공급과 기업 유치 방안, 여수광양항 체선물 저감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들은 또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생산성 향상 방안 논의와 함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앞으로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여수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집행력을 갖춘 회의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5일 오후 광주 북구 우산동 '우산 셋이 나란히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개원식이 열리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민간 어린이집 첫 국공립 전환

북구 '우산셋이 나란히 어린이집' 개원

광주에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첫 사례가 나왔다. 북구는 5일 보건복지부 주관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사업'에 선정된 우산동 소재 '우산셋이 나란히 어린이집'이 광주 최초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개원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에 맞춰 지자체가 자기

소유 건물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 및 운영권을 계약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북구는 지난달 1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해당 어린이집에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들여 보육실 6개·교사실·유희실·조리실·화장실 등을 리모델링 했다. 어린이집의 국공립으로 전환으로 호봉제 적용과 인건비 지원 등 입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들의 처우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북구는 올해 광주도시공사 및 LH공사

공공임대주택 내 신규 설치,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무상임대 국공립 전환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9곳 이상 늘릴 계획이다. 북구에는 이번에 개원한 어린이집을 포함해 총 12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으며, 어린이 835명이 다니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경관아카데미 개최 7일 함인선 교수 강연

광주시는 7일 오후 광주건축사협회관에서 '2019 제1회 경관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월 광주시 총괄 건축가로 위촉된 함인선 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함 교수는 이날 '광주 도시·건축의 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광주지역 건축사, 공무원, 시민 등 100여명과 만난다. 그는 아카데미에서 "좋은 도시·건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한다. 함 교수는 또한 변화된 도시 및 공공건축 관련 제도를 바탕으로 한 우수한 공공건축물 사례를 통해 광주다운 도시·건축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

광주시 '국가폭력 치유' 트라우마센터장 공개 채용

광주시는 광주 트라우마센터의 센터장을 공개 채용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는 전임 오수성 전남대 명예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 사직하면서 후임 센터장 공모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센터장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재활 사업을 총괄하고, 센터 직원과 조직의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주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상근으로, 인기는 채용 계약일부터 올 연말까지다. 1년 단위로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11~17일 응시원서를 받고 21~26일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센터장을 임명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자격은 트라우마 관련 연구·임상 경험이 있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정신보건 경력 10년 이상, 정신보건센터 팀장 경력 5년 이상, 정신보건·임상 심리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다. 2012년 10월 정부 정신보건시범사업으로 출범한 광주 트라우마센터는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가족 등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용된 강우주씨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오수성 전남대 명예교수가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센터장을 지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